

# “28년 업력, 건설·주거 마케팅서 캐릭터 콘텐츠까지 확장”

〈AI 기반 소통 서비스〉

##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 김 병 수 루시드프로모 대표

주거 2114건, 세대수 178만 가구  
국내 최초 콘텐츠 마케팅 기업

입주민 맞춤 ‘아이컨시어지’ 운영  
글로벌 제휴로 VVIP 맞춤 서비스

캐릭터 ‘위캔두잇’ 개발, 소통 극대화  
구독형 캐릭터 콘텐츠 사업 확장



‘건설·주거·하이엔드 마케팅, 컨시어지 서비스, 캐릭터를 활용한 에티켓·콘텐츠 플랫폼...’

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루시드프로모)는 이 세가지 사업을 다 하는 회사다. “우리는 국내 최초의 콘텐츠 마케팅 기업이다. 당초엔 모두 5가지 비즈니스를 구상했었다(웃음). 그러다 지금은 핵심적으로 3가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병수대표(사진)는 1997년에 루시드프로모를 창업했다. 계축년생이니 나이 서른도 채 되기 전이다. 당시 국내 건설

부동산시장에서 수주, 분양, 입주, 커뮤니티 등을 위한 서비스는 태동기였다. 회사 업력은 어느새 30년 가까이 돼간다.

김 대표가 소개한 세가지 부문은 어쩌면 다른 사업 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재개발·재건축부터 분양, 입주, 커뮤니티 운영, 상품 기획까지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다보니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입주민을 위한 컨시

어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28년 업력 동안 루시드프로모가 진행한 건설·주거 프로젝트는 총 2114건, 세대수는 178만9796가구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만난 고객만 1215만9532명이다. 사업 영역을 B2B에서 B2C로 확장한 이유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아이컨시어지’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다.

수 많은 기업·개인 고객을 경험하다 보니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

가 필요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위캔두잇(WeCanDoIt)’이라는 캐릭터다. 이를 활용한 에티켓·콘텐츠 플랫폼 ‘캐릭콘(Characcon)’도 구축했다.

김 대표는 “위캔두잇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탄생했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위한 첫 시작은 ‘에티켓’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캐릭터와 유티있는 메시지로 에티켓 문화를 곳곳에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시드프로모는 아파트 수주 전·분양 전·입주 전·후 등 건설·주거와 관련해 국내 최대·최다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컨시어지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영국 왕실에서 시작한 글로벌 컨시어지 그룹 ‘퀸터센셜리(Quintessentially)’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최고급 주거단지에 VVIP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주거 마케팅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국제컨시어지협회(ICLMA) 정회원으로서 활동하며 35개국, 400여 개사와 탄탄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다.

캐릭터 ‘위캔두잇’을 활용한 자사 플랫폼 ‘캐릭콘’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캐릭터 문화 콘텐츠 사업은 루시드프로

모의 비전이자 미래다. 여기에는 김 대표가 창업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실천’을 고스란히 담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위캔두잇 AI 스튜디오’를 통해 캐릭터 콘텐츠 제작 역량도 혁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캐릭터 콘텐츠만 1만개 이상을 만들어 냈다. 기업들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통해 회사의 일상 소통, 에티켓, 각종 공지사항 뿐만 아니라 심지어 ESG경영 등과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풀수 있다. 기업 고객은 구독을 통해 캐릭터를 이용, 구미에 맞게 다양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캐릭터 콘텐츠는 포스코, 현대건설, CJ올리브네트웍스, 국민건강보험, 제주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넬, 리치몬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AI 기반 제작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캔두잇’ 캐릭터 IP의 글로벌 진출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스포츠·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비전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소공연 “소상공인, 韓 경제 핵심 주체”

‘조정대상 시상식·송년의 밤 행사’  
지위·불공정완화 등 핵심 내용 담겨  
“권리 회복해 소상공인 주권 시대”

소상공인업체가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체임을 천명하고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지위 ▲불공정 완화 ▲소상공인 인식 제고 ▲영업의 자유와 책임 ▲고객응대 피해 저감 노력 ▲소비자인식 개선 ▲사기성 피해 예방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2025 조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5년이 소상공인 100년 대계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6년은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위해 새로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를 통해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들은 물

론,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침해당하기만 하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자주적으로 회복해 나가며 당당한 ‘소상공인 주권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리장전에는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을 바탕으로 법률적, 경제적 불공정 사항을 개선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 ▲바람직한 소상공인상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 노력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객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전 사회적 노력 제고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예약 부도, 플랫폼 악성 리뷰 등 지양 ▲소상공인 스스로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 지양 ▲소상공인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매장 수익 창출 동반자 인식과 더불어 법적인 보호 외에 인격적 대우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김승호 기자

## “코스닥 활성화, 기술평가·자금 지원 시급”

벤처協, 대표·임직원 220명 설문  
추가 자금 공급 필요성 강조  
코스닥 진입 요건 완화 요구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 제도를 뜯어고치고 정책펀드 등 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특례 확대, 상장요건 완화 등도 절실히 원했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진입도 쉽고 퇴출도 엄격한 ‘다산다사’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대표 및 임원 220명을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로는 ‘기술평가 제도

개선’ (51.8%), ‘정책펀드 등 자금공급 확대’ (50.9%), ‘공시·감사·IR 등 비용 및 행정절차 효율화’ (39.5%)가 1~3순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과반수 이상인 52.3%가 ‘기술특례 확대’를 꼽았다. ‘상장요건 완화’ (46.8%), ‘사후관리 및 기업지원 강화’ (36.4%)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은 ‘긍정평가(매우 긍정+다소 긍정)’가 31.8%로 19.5%인 ‘부정평가(매우 부정+다소 부정)’보다 높았다.

시장 진입 및 퇴출 요건에 대한 ‘상장요건 완화’가 80.5%, ‘부실기업 퇴출요건 강화’가 84%로 나타나 진입은 유연하게, 퇴출은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김승호 기자

## “中企 유공자 포상, 12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우리나라 혁신성과와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인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추가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국 단위의 최대 규모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주(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5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연장)’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서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신청기간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 7년 상환연장·금리 1%p 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왔지만 코로나19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

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일시적 경영 애로’란 ▲20~23년 연발 매출액 대비 24년 매출액 감소 ▲중·저신용자(NCB839점 이하) ▲정책자금 채무 외 20~23년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부실징후 포착·모니터링 중인 업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승호 기자